

홈PC '바이오 PCV-L600' 발표

일본 소니의 미국법인인 소니 일렉트로닉스가 새로운 폼팩터를 채택한 홈PC와 디지털다기능 디스크(DVD) 플레이어, 그리고 메모리스틱 탑재 제품을 대거 발표해 컴퓨터와 오디오/비디오(AV) 기능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컴퓨터 리테일 위크」에 따르면 소니가 선보인 신제품 중 홈PC 「바이오 PCV-L600 슬림 톱」은 풀사이즈 키보드 등 데스크톱 포맷에 기반하면서도 14.1인치 LCD화면과 노트북 PC용 프로세서, 슬림형 CD롬, PCMCIA카드 슬롯 등 노트북 요소들을 결합한 혁신된 디자인을 가진 차세대 제품이다.

2999달러 가격에 이달부터 미국에서 출시되고 있는 이 제품은 또 디지털 이미징기능과 확장성을 위해 자사 PC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용 메모리스틱 미디어 슬롯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메모리스틱은 소니가 개발한 플래시메모리 내장 소형기록매체로 디지털카메라 및 휴대형 PC등의 이미지 저장에 이용된다.

따라서 「바이오 PCV-L600」은 차세대 하이엔드 홈PC에 새로운 디자인과 이미지 처리기능을 결

합함으로써 향후 이 시장을 주도하려는 소니의 전략을 반영한 주력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품사양으로는 5백Mhz 펜티엄 III에 10.8GB HDD, 128MB 메모리, 4MB 비디오톱 등을 갖추었다.

또 마이크로 노트북인 「C1 픽처북」은 소니의 「바이오 505 슈퍼슬림」노트북시리즈에서 분리된 제품으로 이 업체의 휴대형 PC 중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카메라 기능이 내장돼 있다.

15인치 LCD 증산

일본 후지쯔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멀티도메인 버티컬 얼라인먼트(MVA)」 방식의 15인치 박막트랜지스터(TFT) 액정표시장치(LCD) 생산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후지쯔는 마이코후지쯔의 12인치 TFT LCD 생산라인을 15인치용으로 개조해 생산량을 현재 월 3만장에서 올해말까지는 4만8000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후지쯔는 특히 올해말까지는 MVA 방식 LCD의 생산비율을 전체 LCD생산량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려 액정사업부문의 매출액도 400억엔 규모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멀티 컬러방식 유기 EL 양산

일본 파이어니어는 차세대 박막컬러 표시장치로 기대되는 유기 전계발광소자(EL) 디스플레이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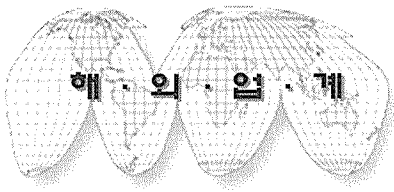
파이어니어가 양산하기 시작한 것은 패널위에 결정된 위치마다 특정 색을 발광시키는 멀티 컬러방식 기술을 채택한 컬러유기EL 디스플레이로 주로 카오디오나 AV기기의 표시창에 사용될 전망이다.

파이어니어는 이 컬러 유기EL 디스플레이를 자회사인 도호쿠 파이어니어(아마가타현 소재)에서 9.5cm×2cm×2mm 크기의 패널로 월 15만장 생산, 오는 6월부터 자사 제품에 탑재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타 업체에도 자동차용 전자기기 및 AV기기의 표시창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파이어니어는 타 업체에 앞서 컬러 유기EL 디스플레이를 양산함으로써 오는 2001년에 300억~500억엔 규모로 예상되는 이 시장의 선점을 꾀하고 있다.

유기EL 디스플레이는 전압을 가하면 스스로 발광하는 유기재료를 이용한 것으로 휘도가 높고 시야각이 넓어 카오디오 등 자동차용 전자기기의 표시창으로 사용할 경우 낮과 밤에 관계 없이 밝은 화면을 표시해 줄 뿐



만 아니라 소비전력도 적은 것이 특징이다.

미, 노트북시장 '정상탈환'

지난해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미국 노트북PC시장에서 2위로 밀려나는 등 불안한 행보를 보였던 도시바가 지난해 4·4분기에 정상탈환에 성공했다.

시장조사업체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까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도시바는 3·4분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 4·4분기에 미 소매시장 뿐 아니라 전체 노트북 판매량에서 다시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IDC는 이 기간 도시바가 전체 노트북 출하량의 17.6%를 차지했다고 밝혔으며 소매유통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PC데이터도 소매 및 우편주문시장에서 도시바가 30%를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 오디즈&서베이에 의하면 우편주문, 소매, 양판점을 포함한 모든 공급채널에서 도시바는 이 기간에 26.6%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도시바는 강력한 제품 전략에 따른 것이며 각 핵심 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을 채택해 나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4분기 동안 매월 가격인하를 단행하는 등 공격적인 가격정책을 유지한 것도 컴팩의 추격을 따돌린 원동력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도시바는 저가전략 강화를 위해 최근 자사 「새틀라이트」기종에 AMD칩을 탑재한다는 방침 아래 333MHz K6-2를 장착한 「새틀라이트 2545XCDT」와 「2545CDS」를 내놓기도 했다.

새 IC리코더 개발

일본 히타치제작소가 버튼 누르기 10초 전의 소리부터 녹음하는 새 IC리코더를 선보인다.

이달부터 판매에 들어가는 히타치의 신형 IC리코더 「사운드클릭 HDM-128R」는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항상 녹음을 계속하는 메모리를 사용해 「조금 전부터 녹음」이라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녹음 버튼을 누르면 이미 기록하고 있는 음성 뒤에 녹음이 이루어진다.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도 녹음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고, 최대 녹음시간은 128분이며, 99건까지 녹음가능하

다. 또 자신의 소리로 스케줄을 녹음해 두면 지정한 시간에 재생하는 「스케줄 관리」기능도 탑재했다. 지정은 90일 이후까지 가능하다.

DVD램 캠코더 내년 봄에 출시

일본 히타치제작소는 소형의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램을 이용한 캠코더를 내년 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히타치가 상품화하는 DVD 캠코더는 직경 8cm의 소형 디스크를 기록매체로 하는 휴대형 제품으로 최종 규격이 올가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종 캠코더는 마쓰시 타전기산업에서도 조만간 다른 가전업체들도 잇따라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DVD캠코더의 상품화를 위해 히타치는 현재 핵심부품인 동영상데이터 압축장치(인코더)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제품의 소비전력은 1W, 가격은 수천엔 정도로 억제할 계획이다.

히타치는 이와 함께 DVD램을 이용하는 비디오테이프의 상품화도 추진중인데, 내년말 시장 투입할 계획이다.

이처럼 DVD 비디오테이프의

상품화가 DVD 캠코더보다 늦어지는 것은 DVD 리코더의 경우 영화 녹화 등이 주용도여서 저작권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 상품으로 기대되는 DVD램 이용 녹화기기는 휴대형 캠코더를 시작으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HDD 탑재 AV기기 개발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과 마쓰시타고토부키전자공업은 미국의 퀴텀과 공동으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를 탑재한 AV기기를 개발, 올 하반기부터 상품화할 계획이다.

이들 3사는 지금까지 PC 등 컴퓨터용으로 사용해온 HDD에 AV기기의 데이터 기록 및 재생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해 TV나 VCR에 내장, 영상을 기록하는 한편 가정용 비디오 편집기로 상품화할 계획이다.

3사는 이번에 시험제작한 제품을 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방송기기전시회인 'NAB쇼'에 출품한다.

HDD는 비디오테이프와 달리 보고자 하는 화면을 곧바로 불러들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잠음 없이 고속으로 재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앞으로 가전 분야 등으로 용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서 DVD 일관 생산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은 올해 안으로 중국 공장에 디지털 다기능디스크(DVD) 일관생산체제를 갖추고 생산을 개시할 계획이다.

마쓰시타는 DVD에 사용하는 핵심부품을 중국에서 직접 생산하고 완성품에 이르는 일관생산체제를 갖추는 한편 DVD플레이어 생산량을 현재의 9배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근 일본 업체들이 중국에서 DVD플레이어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일관생산체제를 갖추기는 마쓰시타가 처음이다.

마쓰시타가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곳은 중국에서 VCR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화록·마쓰시타 녹상기며 이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지난해의 8000대보다 9배 가량 많은 7만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쓰시타는 DVD의 핵심부품인 메커니즘과 신호를 읽어들이는 데 사용하는 광픽업도 현지 공장에서 연간 20만개 규모로 생산할 계획이다.

'조직집약' 체제로 체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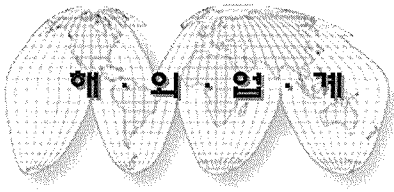
일본 소니가 기존의 「조직분산」 위주에서 「조직집약」 중심으로 기업체제를 바꾼다.

이 회사는 가정용 게임기업체인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SCE) 등을 완전 자회사로 흡수하는 동시에 현행 사내분사제(컴퍼니제)를 대폭 수정해 현재 10개인 컴퍼니를 4개의 사업 본부로 재편·집약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니는 자사와 마찬가지로 SCE 주식을 약 50% 보유한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SME)를 비롯해 소니 케미컬과 소니 플레시전 테크놀로지(SPT) 등 상장 자회사 3사를 내년 1월까지 전액출자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SCE는 4개 사업부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자회사가 된다.

소니의 이번 방침은 디지털 시대로의 이행을 배경으로 AV기기 관련 시장 및 경쟁 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전환기에는 컴퍼니제에서의 조직분산보다는 조직을 강력히 통괄하는 체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방침에서 특히 게임기에 무게를 두는 것은 기대 이상의 보급 확대로 수익성이 높은 데다 향후 가정용 단말기의



에 · 의 · 업 · 계

강력한 플랫폼(기반)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석된다.

이번 방침과 함께 소니는 전세계의 약 70개 공장 및 사업소를 내년엔 60개로, 2002년 말까지는 55개로 집약하고, 인력도 10% 정도 감원할 계획이다.

소니는 지난 94년 사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컴퍼니 제도를 도입해 실적을 크게 향상시켜 왔는데, 이 제도는 다른 일본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번 기업체제 조정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주목된다.

일본의 휴대폰 가입자 수가 4천만명을 돌파했다.

업계에 따르면 휴대폰과 PHS를 합한 이동전화서비스업계의 2월 중 가입현황에서 휴대폰 가입자는 70만8천명이 새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휴대폰의 누계가입자는 4천49만6천명으로 집계돼 지난 79년 12월 서비스 개시 이후 처음으로 4천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반해 PHS는 2월에도 7만4천명이 줄어 17개월째 감소를 기록했으며, 누계가입자 수도 5백78만3천명으로 떨어졌다.

이 없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기존의 에폭시수지 기판은 각층간의 전기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멍을 뚫었으나 모자이크는 구리와 도금으로 생긴 범프(돌기)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천공작업이 필요없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기의 흐름을 실현할 수 있다.

소니는 올해말까지 40억엔을 투자해 모자이크 생산라인을 구축, 오는 2000년부터 소형화가 급진전 되고 있는 휴대폰이나 노트북PC 등 휴대정보기기업체를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테이프·HDD 장점 결합 감시 비디오시스템 개발

일본 소니는 테이프장치와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결합한 복합 감시 비디오시스템을 개발했다.

소니는 테이프와 HDD의 장점을 결합, 테이프의 불필요한 작동음을 줄여 헤드 등의 마모를 방지했으며 테이프를 교환할 때도 계속해서 녹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초박형 빌드업 PCB 개발

일본 소니케미컬이 두께가 기존제품의 3분의 1 수준인 초박형 빌드업 인쇄회로기판(PCB)을 개발했다.

소니가 이번에 개발한 복합다층 빌드업 PCB인 「모자이크」는 접착제 대신 열가소성 폴리이미드를 사용해 각층을 접착함으로써 기판의 두께를 현행 에폭시수지 기판(1백50~2백 μ m)의 3분의 1 수준인 50 μ m으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접착층이 필요없는 이층수지막을 적층하기 때문에 접착제에 함유돼 있는 할로겐화합물

HDD용 통합칩 개발 추진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가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용 통합 칩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TI가 개발기로 한 통합칩은 5개의 집적회로(IC)를 하나의 상보성 금속산화막반도체(CMOS)로 통합시킨 것으로 오는 2·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 칩이 발표되면 HDD의 생산단가가 크게 낮아져 궁극적으로 저가 PC의 수요확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했다.

TI의 통합칩엔 DSP와 읽기채

일, 이동전화 가입자 4천만 돌파

널·제어로직·인터페이스·메모리IC 등 기존에 별도로 사용되던 5가지 칩의 기능이 집약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HDD 제조에 사용되는 칩의 수는 기존의 9개에서 5개로 줄어들게 돼 그만큼 제품 생산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게 된다.

TI는 통합칩이 발표되면 HDD 용 칩시장에서 자사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통합칩이 자사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분석가들은 TI가 통합칩 개발에 나선 것을 계기로 HDD 용 칩 아키텍처 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SW업체 '비욘드컴' 과 SW온라인 공급 제휴

미국 컴팩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비욘드컴과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서비스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비욘드 컴과 공동 브랜드로 운용되는 컴팩의 웹사이트는 개발자, 컨설턴트, 시스템통합(SI) 업체들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기존 컴팩

사이트(compaq.com)를 이용하는 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오는 2002년까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거나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제품이 전체의 35%에 이를 것이라는 시장조사업체 주피터 커뮤니케이션스의 전망을 들면서 디지털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판매방식의 중요한 흐름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비욘드는 컴팩의 지명도를 이용, 새로운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 한편 포털사이트 강화 및 온라인 소매점 인수 등 최근 들어 인터넷 소매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컴팩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웹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CD리코더 대폭 증산

일본 파이어나어는 콤팩트디스크(CD)에 음악을 기록할 수 있는 CD리코더의 생산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파이어나어는 최근 CD리코더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자국내 도코로자와공장(사이타마현 소재)의 생산라인을 늘리

는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말레이시아 공장에서도 생산을 시작, 생산 능력을 현재의 2배인 연간 40만대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파이어나어는 월 1만4천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도코로자와공장의 생산라인을 보강해 지난달부터는 월 2만대 규모로 늘려 내수용으로 연간 20만대 이상 출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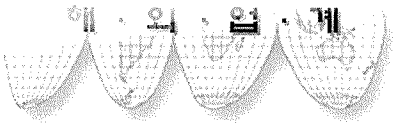
파이어나어는 또 현재 CD플레이어와 미니디스크(MD) 컴포넌트를 생산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파이어나어 테크놀로지 말레이시아에도 CD리코더 생산라인을 구축해 오는 10월부터 연간 20만대 규모로 생산할 예정이다.

고성능 CMR헤드 양산 준비

일본 알프스전기가 면기록밀도 10기가비트 이상인 고성능 거대자기저항(GMR)헤드 양산에 적극 나선다.

알프스전기는 우선 내년 가을 평방인치당 기록밀도가 현행 최첨단 제품의 2배나 되는 10기가비트급 GMR헤드를 양산하고 이어 오는 2002년 봄에는 20기가비트 헤드를 양산할 계획이다.

알프스전기는 이미 이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거의 해결했으며 올해와 내년에 제조설비나



검사장치개조를 위해 각각 1백억엔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현재 4~6기가비트 GMR헤드를 양산중인 알프스전기는 이에 앞서 오는 9월에 월산 규모를 1천1백만개로 확대하는 동시에 면기록밀도를 6기가비트로 높은 제품을 투입하는 한편 내년 4월에는 7, 8기가비트의 GMR헤드를 내놓을 계획이다.

알프스전기의 10~20기가비트 제품 양산 추진은 소니 등의 신규참여추진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자기해드시장에서 고성능 제품의 조기 투입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GMR헤드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으로 종래는 주로 PC용이었지만 앞으로는 디지털가전이나 차량탑재전장장치로 용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MR 및 GMR헤드의 외판시장에서는 TDK를 비롯해 알프스전기와 야마하 등 3개사가 세계시장의 60~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소니도 이 시장 참여를 적극 추진중이다.

세계 PC 칩 시장서 AMD에 뒤져

세계 퍼스널컴퓨터(PC) 마이

크로프로세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인텔사가 지난 1월 미국 내 판매량에서 2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시장 조사기업인 「PC 데이터」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1월 시장동향에 따르면 인텔에 눌러 줄곧 2위에 그쳐온 AMD의 AMD-K6 프로세서를 장착한 데스크톱 PC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펜티엄Ⅱ와 셀러론 등 인텔의 프로세서를 장착한 PC 판매량을 넘어섰다.

AMD-K6 프로세서 PC 판매량은 1월 전체 판매량의 43.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인텔프로세서 장착 PC 판매량은 4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릭스는 15.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AMD가 인텔을 앞설 수 있었던 것은 1천달러 미만의 PC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65%를 넘는 등 강세를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저가형 PC시장을 공략해온 AMD는 1천달러 미만시장에서는 5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반면 인텔은 저가형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셀러론을 내놓고는 있으나 시장점유율은 25.4%에 그쳤다. 그러나 1천달러 이상의 PC 판매량에선 인텔이 여전히 3분의 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텔은 그간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을 장악, 컴퓨터 운용체

계 시장을 독점해온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함께 「윈텔」로 불리면서 세계 PC시장을 주도해왔다.

한편 1월 한달의 PC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2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1천달러 미만 PC의 경우 1백80%이상 늘어났다.

CT기술 윈도NT에 통합 추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컴퓨터 전화(CT) 기능을 윈도 운용체계(OS)에 통합할 계획이다.

CT기술은 PC를 통해 전화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동다이얼 기능을 비롯해 영상회의, 자료전송, 음성사서함, 송신호에 대한 자동 정보제공 기능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MS는 이를 위해 CT 소프트웨어(SW)업체인 다이얼로직의 「CT 미디어」를 라이선스 받아 윈도NT에 통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컴퓨터와 전화 및 팩스를 통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S는 다이얼로직의 SW를 라이선스받고 기술지원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향후 4년간 2천만달러의 라이

선스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MS는 또 이 회사 총주식의 5%에 해당하는 86만주를 2천4백만달러에 매입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PC중심의 셀러론 칩 공급 탈피 임베디드기기용까지 확대

미국 인텔이 임베디드 시장 공략을 서두르고 있다.

인텔은 현재 PC용 셀러론칩을 산업용 계측장비와 자동입출금기(ATM) 등 임베디드기기용으로 공급, 매출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인텔의 론 스미스 컴퓨터 기능강화그룹 부사장은 「PC 기술의 임베디드 시장 적용이 과거 어느때보다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에 맞춰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텔은 이를 위해 임베디드용으로 3백 및 3백66MHz 셀러론을 개발, 공급할 계획인 가운데 영상 진료기 등을 생산하는 일부 고성능 의료기업체들은 인텔의 최신 펜티엄Ⅲ를 채택하는 데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가들은 이같은 인텔의 임베디드 시장 공략 움직임이 산업용기기나 가전제품 등의 고성

능·다기능화를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용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과 ATM이나 가전기기 등의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텔이 산업용 시장에 공급할 임베디드 셀러론의 가격은 데스크톱 PC용 제품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인텔 관계자는 예상했다.

플래시메모리 증산

일본 미쓰비시전기가 플래시 메모리제품을 증산한다.

이 회사는 시황악화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D램의 일부 생산라인을 플래시 메모리용으로 돌려 올 여름부터 현재 3백만개 정도인 월 생산규모(16Mb 환산)를 6백만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사이즈공장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D램의 주력 공장인 구마모토공장으로 이관하는 한편 구마모토공장에 선폭 0.25미크론의 최첨단 설비를 도입, 가동할 계획이다.

또 생산 이관과 함께 차세대 제품인 32Mb 플래시 메모리의 양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쓰비시전기의 이번 증산방침은 휴대폰의 데이터 기억용으

로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증산을 계기로 미쓰비시전기는 98년 2백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플래시 메모리의 매출 규모도 2000년에는 4백억~5백억엔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플래시 메모리시장에서 미쓰비시전기는 후지쯔와 샤프에 이어 3위에 올라있다. 그러나 미쓰비시전기 제품은 타사 제품에 비해 처리속도가 우수해 휴대폰의 데이터 기록용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 올 PC 출하대수 작년보다 10.3% 늘듯

지난해 일본 PC출하가 전년과 같은 수준인 7백92만3410대를 기록했다.

이 규모는 IDC재팬의 당초 예상 발표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하락세가 지속된 업무용 PC시장의 감소분을 가정용 PC시장이 보완해 전년 수준 유지가 가능했다.

가정용 PC시장은 전년대비 28.4% 증가한 264만4000대를 기록했는데 윈도98 출하개시와 소니 노트북PC 바이오시리즈와 애플컴퓨터 i맥의 호조 등이 출하 증가의 배경으로 분석됐다.